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코스닥 790P선 회복

- 뉴욕증시는 애플의 '아이폰X' 판매 전망치 하향 소식에 애플을 비롯해 관련 부품주와 IT 주요 종목들이 동반 하락,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일제히 하락 마감. 2,420P선을 위협하며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순매도세로 돌아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로 장중 2,411P까지 하락했으나, 10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선 개인 매수세로 장 후반 반등에 성공하며 2,430P선을 회복. 겹상승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 연기금 등 일부 기관 매수세를 보인 가운데 배당락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장 후반 4% 가까이 폭등하며 한달 만에 790P선 회복에 성공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소로 등극한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되며 카카오가 급등했으며, 신규 상장 첫날 차익실현 매물로 급락했던 시스웍은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상한가를 기록. 글로벌 초정밀 지도 대표기업인 '히어 테크놀로지스'와 '차세대 커넥티드카 솔루션공동개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LG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692억원 규모의 램시마 및 트룩시마 판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동반 급등세를 보임. 또한, 신작 출시 및 흥행 기대감 등으로 게임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내년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에 2차전지 등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임. 반면, 4분기 영업손실 전망과 함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급락했으며, 배당락 여파로 통신, 유틸리티, 은행주 등 고배당주들이 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용
카카오(035720) ▶139,500 (+10.71%)	‘업비트’ 운영사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되며 초강세 -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되며 초강세. 동사는 두나무 지분 9.42%를 보유하고 있어 ‘업비트’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 - ‘업비트’는 지난 10월 오픈해 2개월여 만에 회원 수 120만명,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동시접속자 30만명을 기록하며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급부상
게임주	신작 기대감 등으로 연일 강세 - 신작 출시를 앞둔 게임빌, 펠어비스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진 가운데 겨울방학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 와이디온라인(052770, 상한가), 웹젠(069080, +10.49%), 펠어비스(263750, +9.22%), 위메이드(112040, +8.51%), 조이맥스(101730, +6.38%), 게임빌(063080, +4.82%) 등 강세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에 강세 -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퉀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는 등 내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 코스모화학(005420, +14.47%), 상아프론테크(089980, +7.92%), 엘앤에프(066970, +7.74%), 삼화코덴서(001820, +6.72%), 일진머티리얼즈(020150, +6.13%), 삼화전기(009470, +6.05%)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용
LG전자(066570) ▶107,000 (+7.86%)	- 글로벌 고정밀 지도 업체인 히어와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 체결 소식에 신고가 경신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107,600 (+9.57%)	- 셀트리온과 692억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램시마 및 트룩시마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